

# 장성, 전국 최고 출산율 도전 '역량 집중'

## 합계출산율 1.68명...주거·교육 등 전방위 강화 침단3지구 입주 호재...“인구 6만명 시대 열 것”

장성군이 전국 최고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다. 군은 상생세를 이어 1~2년 내 전국 1위 달성을 목표로 주거·보육·교육·청년정책 등 전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5일 국가데이터가 최근 발표한 '2025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장성 지역 합계출산율은 1.68명으로 전국 2위를 차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던 2022년 0.83명까지 떨어졌지만 2023년 1.15명으로 반등한 뒤 2024년 1.34명, 2025년 1.68명으로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출산과 양육을 뒷받침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가능케 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군은 출산 장려금 확대를 기점으로 정책 전환에 속도를 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인 2023년부터 첫째·둘째·셋째아 지원금을 각각 400만·600만·800만원으로 대폭 인상했고, 넷째아 이상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임산부 지원도 총출동하다. 고위험 임산부에게 스마트워치·혈압계·혈당계 등을 제공하는 '스마트 맘케어', 12주 이상

임신부에 가사도우미·청소비를 지원하는 '맘튼든 가사케어',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 등 실질적 체감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 분야도 강화했다. 초·중·고 입학축하금과 중·고교 교복비, 청소년수당(꿈키움바우처), 학기당 최대 200만원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다. 3월부터는 (재)장성장학회가 대학생 주거비 지원도 맡는다.

정주 여건 개선도 병행한다. 가족 복지 서비스를 통한 제공하는 가족행복센터가 운영 중이며, 최근 청년센터 '아우름'을 개관해 청년 활동 거점을 마련했다.

외사업 청년 장업을 지원할 '장성미시산업진흥원'은 4월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미래 먹거리 기반도 구축한다. 삼사·삼계면 일원 13.1ha에 레몬·아열대 채소를 재배하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조성해 청년 농업인 유입을 유도하고, 공동육묘장·스마트산지유통센터·가공센터 등을 갖춘 대단위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광주시와 맞닿은 침단3지구 개발은 출산율 상승세를 견인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국립심뇌혈관질환센터와 데이터센터 건립, 1만명 규모 주거단지 조성이 본격화되면 인구 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김한중 군수는 "침단3지구 입주가 시작되면 장성 인구는 대전환을 맞을 것"이라며 "인구 6만명 시대, 합계출산율 1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입 인구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원을 강화해 '행복이 성장하는 장성'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성=이항범 기자 lhb6699@gwangnam.co.kr

를 재배하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조성해 청년 농업인 유입을 유도하고, 공동육묘장·스마트산지유통센터·가공센터 등을 갖춘 대단위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광주시와 맞닿은 침단3지구 개발은 출산율 상승세를 견인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국립심뇌혈관질환센터와 데이터센터 건립, 1만명 규모 주거단지 조성이 본격화되면 인구 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김한중 군수는 "침단3지구 입주가 시작되면 장성 인구는 대전환을 맞을 것"이라며 "인구 6만명 시대, 합계출산율 1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입 인구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원을 강화해 '행복이 성장하는 장성'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성=이항범 기자 lhb6699@gwangnam.co.kr



김한중 군수와 공직자들이 2026년 새해 첫 아기인 유시용군 가족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장성군

## 함평군-GIST, 미래 성장 동력 '지역특화전략사업' 발굴

### 연구용역 계약...단계별 실행 전략 구체화

함평군이 전남·광주 행정 통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특화전략사업 발굴에 나섰다.

5일 군에 따르면 급변하는 대외 정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광주과학기술원(GIST) 과의 연구용역 계약 체결하고, 지역특화전략사업 발굴 용역을 추진한다.

이번 용역은 새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국정 방향이 구체화 되고, 지난 1

일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광역 행정 체계의 큰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지역의 여건과 강점을 토대로 실현 가능한 미래 성장 전략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GIST와 협력해 군의 산업·정주·농축산·에너지 등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국가 산업정책과 연계 가능한 전략 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연구 결과는 정부 정책 건의와 국책 사업 유치 등 행정 통합에 대응하기 위한 단계별 실행 전략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특히 군은 △빛그린산단을 중심으로 한 미래 모빌리티 및 반도체 산업 육성 △인공지능(AI)·인공지능 전환(AX) 기반 농축산업 고도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중앙정부 정책 방향과 각종 공모사업과 연계 가능성도 철저히 검토해 사업의 실행력을 높여겠다는 계획이다.

군은 AI와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 분

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 역량을 갖춘 GIST와의 협력을 통해 기술 기반의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전략을 도출하고, 사업화 및 정책화 가능성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등 외부 환경 변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인 만큼, 기초지자체 차원의 실질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 함평군이 변화하는 행정 환경 속에서 수행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최원국 기자 6263739@

## 순천 성가롤로병원, 권역 의료안전망 역할 강화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상향 지정

순천 성가롤로병원이 지난해 지역심뇌혈관센터로 지정된 데 이어, 올해 전국에서 단 1곳만 선정되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최종 선정됐다.

5일 순천시에 따르면 성가롤로병원은 지난해 1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된 이후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는 등 체계적인 운영 방향과 발전 방안을 마련해 왔다. 2025년 7월 1일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개소 이후에는 지역에서 치료받던 중증 심뇌혈관질환 환자가 약 7% 증가하며, 중증 환자의 지역 내 치료 역량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

이번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으로 성가롤로병원은 최신 의료장비 도입과 전문인력 확충, 24시간 전문의 상시 대기 등을 통해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환자들도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 지역 내에서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

인 최종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심혈관센터, 뇌혈관센터, 심뇌재활센터, 예방관리센터의 4개 전문센터로 구성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료와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권역 단위의 예방사업과 교육 프로그램, 지역 의료기관과 소방과의 연계 센터 개소 이후에는 지역에서 치료받던 심뇌혈관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성가롤로병원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은 지역 필수응급의료체계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멀리 가지 않고도 지역 내에서 최종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연계 의료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봄별 맞으며 힘차게 질주! 제7회 3·1절 기념 강진 투어 전국도로사이클 대회가 열린 가운데 지난 4일 여자 고등부와 일반부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이 봄 햇살 아래에서 힘찬 페달을 밟고 있다. 사진제공=강진군

## 고흥, 기후 위기 대응·재해 예방 총력

###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에 272억 투입

고흥군은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사업을 본격화한다.

군은 올해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에 총 272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가뭄과 집중호우 등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로부터 농경지를 보호하고, 노후화된 수리시설을 개보수해 영농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은 도화 구암저수지 정비 등 11개소(75억원),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5개소(110억원), 점안 강산지구 등 배수개선 2개소(33억원), 금산 신촌

발기반 정비(6억원), 16개 읍면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48억원) 등이다.

군은 이번엔 교부된 예산을 바탕으로 기금이 저하된 노후 저수지와 방조제를 보수·보강하고, 상습 침수 구역의 배수 능력을 개선해 농업 생산성 향상 및 안정적 영농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아울러 각 읍·면의 경작로와 용·배수로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도 조속히 추진해 영농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 해남, 소상공인 협업네트워크 활성화

### 7인 이상 협업 공동체에 최대 500만원 지원

해남군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의 소상공인 협업을 지원하는 '2026년 소상공인 협업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같은 업종이거나 연관된 업종의 소상공인들이 모여 공동사업을 추진해 동반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해남군 내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 중 동종 또는 유사 업종 7인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체이다.

동종업종은 '같은 일 하는 사업자'로 주력상품과 서비스가 동일한 업종이다. 예

를 들어 음식점+카페, 영상제작사+영상 편집, 의류소매업+의류 소품몰과 같은 경우 동종 업종으로 볼 수 있다.

유사업종은 '같은 일하면 시너지가 나는 업종'으로 업종은 다르나 기술, 공정, 시장, 가치 사슬 등이 밀접하게 관련있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예를 들어 영상제작+광고기획, 농산물 생산+가공 유통과 같은 경우가 있으며 7인 중 3명까지는 유사업종으로 구성할 수 있다.

총 4개소를 선정 예정이며, 개소당 최대 5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 나주, 농작업 편의의자 1만2773개 농가 보급

### 시·도비 5억원 투입

나주시가 농업인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농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농작업 편의의자를 전 농가에 확대·보급한다.

5일 시에 따르면 도비와 시비 등 총 5억여원을 투입해 농작업 편의의자 1만 2773개를 공급, 농가당 1개씩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지난해 편의의자를 지원받은 농가와 세대원은 올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작업 편의의자는 허리 지지대와 의자가 결합된 일체형 구조로 체중을 분산시

키고 허리를 안정적으로 고정해 척추 부담을 줄여준다.

또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을 완화해 반복적인 앉고 일어서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피로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특히 고령농과 여성농업인 등 근력과 관절 부담이 큰 농업인에게 작업 지속 시간을 늘리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농작업 편의의자 확대 보급이 고령, 여성농업인의 건강 보호와 작업 효율 향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현장 중심의 농작업 환경 개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환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나주시가 농작업 편의의자 보급을 농어민 공익사업 지급 대상자 지원으로 확대한다. 사진제공=나주시